

평생학습으로서 노인 연극 활동의 의미

이재민·임지혜(안동대학교)

평생학습으로서 노인 연극 활동의 의미

이재민* · 임지혜** (안동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는 칠곡군의 '가'연극단 활동에 참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으로서 노인 연극 활동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칠곡군 마을 주민들과 라포를 형성하며 일여 년 동안 참여관찰을 수행했고, 그 기간 동안 작성된 연구노트를 바탕으로 노인 연극 활동에 참여한 13인에게 수집한 심층 면담 자료를 반복적 비교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은 노인 연극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관계 맺기로 중요한 타인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배우음으로서의 가치를 인지하며 함께 성장하고 성취하는 재미를 느끼고 있었다. 또한 연극단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연극단원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평생학습, 노인 연극, 공동체, 사회적 관계망, 자존감

I. 서론

경북 칠곡군의 어느 마을에는 할머니들이 연극을 하는 연극단이 있다. 이들은 칠곡군의 평생학습도시 정책 중 하나인 성인문해교실에서 한글·산수·미술 등을 배우는 할머니 학생들로 구성된 연극단이다. 이들의 연극단 활동은 고령사회에서의 평생학습에 대해 많은 고민 지점들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평생학습도시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73년 UNESCO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를 받으면서부터다. 이후 1999년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에서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운동을 벌여 2006년까지 30개 시·군·구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참여하며 기틀을 다지게 됐다.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학습이 필요한 만큼 각 지자체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 주저자, 안동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jaymi@nate.com

** 교신저자, 안동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nothing1137@anu.ac.kr

고령화¹⁾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농촌지역에서는 일찍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활용하여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Row & Kahn(1997)은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세 가지 요인으로 질병과 장애의 예방, 건강한 신체와 인지기능 유지, 그리고 사회활동과 생산적 활동에 참여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활발한 사회 활동 참여를 통한 정서적 지지는 신체기능 유지의 예측 인자가 되기 때문에, 삶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위한 환경적·사회 문화적 요인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활동을 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설계 될 수 있으며, 여기서 평생학습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교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학습공동체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연극 활동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이슈 들은 이와 같은 평생 학습적 효과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북 칠곡군의 '가'연극단 활동에 참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으로서의 노인 연극 활동의 의미를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노인 연극의 치료 효과와 그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면(김동배, 2008; 김선희, 2008; 현경석, 2013 등), 본 논문에서는 노인 연극을 '활동'²⁾으로 간주하고 노인 연극 참여자들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연극 활동이 노인들의 삶 속에 어떻게 녹아들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인들의 내면의 변화는 어떤 모습인지, 그러한 변화들은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고령화 사회에서 평생학습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성찰해 보고자 하였다.

1)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지 17년 만인 올해(2017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14%를 넘어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행정안전부, 2017).

2) Arendt(1958)은 어떤 다른 것을 위한 '수단(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형태를 노동과 구별하여 '활동(action)'이라고 불렀다(Arendt, 1958, 이진우, 태정호 역, 1996).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과 평생학습

평생학습은 전 생애에 걸쳐 행해지는 교육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평생학습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며,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각 사회 구성원들이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김은숙, 황선경, 염돈민, 2011: 5). 특히 노인을 위한 평생학습은 다른 연령층에서 이루어지는 정규교육 또는 직업교육과는 다르게 노년기에 인지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회 및 여가 생활을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죽음에 가까운 존재로서 인생의 깨달음을 얻게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김동배, 2008).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생활을 즐기고, 사교적이며,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Dench & Regan, 2000). 그리고 노인들의 평생학습 경험은 노령화에 대한 적응과 두뇌 자극에 도움이 되며, 특히 조부모로서나 자원봉사자 등과 같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습득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Davey & Jamieson, 2003).

평생학습은 노인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하는 방식을 배우고 자신의 남은 생을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역량을 함양토록 하며, 노인 스스로가 자신을 개발하고 사회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노인교육연구회, 2004). 즉, 노인 평생학습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로 수용하는 것으로서 노인 개인의 내면발달과 성숙(Personal Development)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공존하는 지혜를 습득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을 위한 수단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노년의 삶에서 평생학습 활동에 참여하며 신체활동·지적활동·교류활동 등을 통해 개인적인 의미를 찾는 것은 평생학습 공동체 활동에 대한 초기 접근과 지속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초기 접근을 통해 개인적으로 의미를 찾으면, 긍정적인 감정이 표출되며 이는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노인의 공동체 활동을 통한 평생학습 경험은 노년의 일상을 학습으로 보내게 되는 계기가 되며, 학습은 곧 습관이 되어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김정진, 이성엽, 2013). 또한 노인들은 공동체 활동의 평생학습 경험을 통해

상호 간 친밀한 인격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경험하고, 공동체 활동의 반복적인 의례과정에서 주체적 노인으로서 학습되며 공동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장소은, 이병준, 2014).

2. 노인 연극 활동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 연극 활동에 대해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고, 주체의식과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며,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지식과 경험의 활용 능력이 배가한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³⁾ 뿐만 아니라 노인 연극 활동으로 인해 삶이 활기차지고, 배우의 욕구가 증가했으며,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회활동이 증가했으며, 가족 간 화목해졌다는 효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임경주, 2009).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복지’의 영역에서 노인 연극이 거론되었지만, 우리 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일본에서는 복지 및 치료, 취미와 여가, 직업 등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 연극의 가능성은 보다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이혜정, 이흥이, 2016).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연극 활동에 대한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7; 김선희, 2008; 이승희, 2011 등).⁴⁾ 이와 같은 연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노인의 연극 활동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연극 활동의 무형식학습으로서 ‘놀이’의 특징을 가진다. 놀이로서의 연극 활동은 비형식 혹은 무형식학습으로서 ‘내가 만약 ... 라면’이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극 중 자신이 맡은 역할을 통해서 특정시대에 특정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이런 행위를 통해서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을 다시 복

3)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정책적 방안으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노인 연극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후반에서부터 실버극단의 활동에 주목하면서 노인 연극을 통해 사고를 젊게 하고 자신감을 재충전하여 적극적이고 당당한 제 2의 삶을 향유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이와 같은 관심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재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실버극단을 양성하고 장려하고 있다.

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07)은 『노인 연극교육과정 개발·운영 연구』에서 노인연극의 효과를 노년에 자신감과 사회성 강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 발표를 통하여 노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노인 또래 집단에서 상호지지와 협력을 다질 수 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갖게 하며, 봉사활동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김선희(2008)는 「노인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 개발연구: 청원군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에서 노인들이 연극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이 되어 봄으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이를 통해 사회에 대한 보다 폭넓은 안목을 갖게 해준과 동시에 윤택하고 풍부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또한 이승희(2011)는 「자존감 향상을 위한 노인연극 실행사례 연구: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연극반 활동을 중심으로」에서 연극놀이를 이용하여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기함으로써 자존감 회복이 가능하다.⁵⁾ 즉, 놀이로서의 연극은 노인이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보고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학습의 방식으로, 교육방법에 의해 가르치려 하기 보다는 자유로운 놀이처럼 접근하여 차별화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노인 연극 활동의 ‘학습 동아리’로서의 특징이다. 노인 연극 활동은 정기적인 모임으로써 공연을 연습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 연극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발적으로 극단에 참여하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대본을 외우기 위해 서로를 돕고 의지하는 나눔과 공유의 경험은 소그룹 학습 공동체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노인 연극 활동은 ‘사회 참여 활동’으로서의 특징이 있다. 노인은 연극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와 상호관계가 연결된다. 노년기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은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사회 참여 활동이 활발할수록 정서적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질 수 있다(Bengtson, 1969). 노인 연극 활동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지식을 습득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場)을 조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 연극 활동은 무형식학습으로서 노인들에게 자연스러운 재사회화의 기회를 제공하며 학습동아리로서 서로에 대한 나눔과 공유의 경험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다. 또한 사회 참여 활동으로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질 수 있고, 타인과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인지적·정서적 지식이 상호 교류하는 학습의 장을 조성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노인 연극 활동 참여를 통한 평생학습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칠곡군 어로리 '가'연극단의 평생학습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연극단의 단원인 할머니 13인을 연구참여자로 하였다. 13인의 할머니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창단할 때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 할머니들이다.

5) 극에서 해결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을 재확인함으로써 마음의 짐을 벗을 수 있다. 이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時學)’에서는 ‘아나그노리시스(Anagnorisis)’라 한다.

'가'연극단의 시작은 칠곡군에서 진행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성인문해교실 '○○학당'을 기반으로 하였다. ○○학당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한글, 산수, 그림 등을 가르치는 마을 평생교육기관이다. ○○학당에서는 성인문해교실 성과발표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연극을 시작하였으며, 권정생의 동화 < 훨훨간다>를 각색하여 만든 5분 짜리의 짧은 연극이 지금의 '가'연극단 활동의 계기가 되었다. 2013년 10월, 성인문해 성과발표회에서 첫 공연을 하였으며, 창단 인원은 15인이었으나, 사망·부상 등의 이유로 4인이 하차하고, 신규 1인이 가입하여 13인이(2016년 기준)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연했던 작품으로는 《훨훨간다》, 《흥부네 박터졌네》, 《흥부네 경사났네》, 《거울속에 누구요?》의 네 작품이 있으며, 1년에 한 작품씩 연습과 공연을 지속하고 있다.

'가'연극단원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시간에는 일상생활의 한 일과처럼 지속적으로 평생학습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에게 화요일과 목요일의 연습시간은 무언의 약속이자 의무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을회관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한글공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연극연습을 하고 있다. 그 이후에는 저녁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나누며 일상속의 소소한 즐거움을 공유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연구참여자들의 특징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1〉 연구참여자들의 주요 특징(2016년 기준)

ID	연령	거주기간	특이사항
A	81	55년	• 연극단이 창단될 때부터 활동 • 고 연령에도 불구하고 암기력이 뛰어남
B	65	13년	• 극단 막내이며, 친구의 권유로 연극단에 들어옴
C	67	42년	• 부녀회장이며, 연극단의 단장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
D	75	47년	• 극단 회원의 사망(2015.03)으로 인하여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입
E	80	54년	•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연극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함
F	83	57년	• 한글을 배우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 극단 활동을 시작하게 됨
G	80	50년	• 극단 활동을 통해서 유년시절 불렀던 노래가 기억남
H	74	15년	• 연극단 선생님의 권유로 연극단에 들어옴 • 2016년에 인근 동네로 이사를 하였으나, 극단활동은 지속함
I	71	40여년	• A할머니의 권유로 연극단에 들어왔으며, 마을에서 가게를 운영
J	65	7년	• M할머니의 부상으로 인하여 연극단활동을 시작함(2015년)
K	77	40여년	• 한글수업을 시작하면서 연극단활동을 창단때 부터 시작함
L	82	50여년	• 한글수업을 시작하면서 연극단활동을 창단때 부터 시작함
M	83	40여년	• 극단 활동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해 현재는 활동을 하지 못함

2. 자료수집

본 연구 자료는 칠곡군에서 연극단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2016년 7월에 연구의 목적과 협조에 관하여 마을이장을 통해 각 연구참여자들을 방문하여 연구허락을 받은 후, 일정을 조율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2016년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20회의 심층면담을 실시했으며, 매 면담 시 40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주로 일대일 면담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주어진 상황에 의해 일대다 면담도 3회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별 심층면담이 가능한 장소와 일시를 미리 정하여 계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자택과 마을회관에서 간단한 간식과 함께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개별면담이 끝난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의 심층면담에 참여한 경우는 1회 있었으며, 이를 통해 참여자 간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유발하여 예상치 못한 자료를 수집하기도 했다. 심층면담은 반 구조화된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참여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초기질문으로 시작하여 연극단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같은 전환질문 이후, 다음 <표 2>와 같은 주요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표 2〉 심층면담 주요 질문

대주제	소주제
연극단 활동배경	연극단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 동기 등
연극단 활동경험	지금까지 맡았던 연극 배역
	연극단 활동 후 변화양상
	주변에서의 반응
	활동 에피소드
삶에 주는 의미	즐거웠던 경험, 갈등 경험
	나에게 연극단 활동이 주는 의미
	연극단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

본 연구자는 심층면담 외에도 그들의 연극단 활동을 통한 상호작용과 삶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연극연습, 한글공부, 마을 축제 등의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직접참여관찰 및 준참여관찰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본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활용되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활용하여 주요 키워드와 주제들을 도출하였다. 우선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는 녹음된 면담 목소리 그대로 글로 전사하였고, 전사 작업을 완료한 후, 자료를 읽으면서 이름을 붙이고 분류하여 핵심적인 단어와 주제들을 도출하는 개방코딩을 실시하였다. 개방코딩 결과 11개(관계맺기·즐거움·친밀감·배움·성취감·인정·자신감·자존감·소속감·자부심·책임감)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개방코딩 이후에, 범주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진술내용은 비슷한 내용들끼리 상호 비교의 과정을 거쳐 범주화를 진행하였으며, 하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하위 주제의 핵심 단어들이 본 연구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4가지 주제로 범주화 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자료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명의 조사자를 조사과정에 포함시키는 조사자 삼각검증(Triangulation), 교육학 전공의 동료 연구자 2인에 의한 조언과 지적, 부분 연구 참여자 검토 방법을 사용하였다.

4. 연구윤리

본 연구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인터뷰, 참여관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마을 이장과 연극단 할머니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윤리성에 관해 구두로 설명하여 모든 인터뷰 녹음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 마을 이장의 인터뷰는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실시 배경, 과정, 내용 등 사전 배경지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고령의 연령으로 인하여 글씨를 읽고 쓰는 데 불편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기에, 연구 윤리에 관한 내용은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심층면담 시기 이후에도 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신뢰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연구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공유와 소통을 통해 윤리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연구자 보호를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알파벳 기호로 처리하였다.

IV. 노인 연극 활동의 평생 학습적 의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개인적·사회적 긍정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연극단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마을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도 연극단 활동에 참여하고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연극단 이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마을주민들과 친밀해져 삶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극단 활동을 지속하면서 연극대회 수상, 방송 출연, 한글 습득 등의 경험으로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연극배우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다양한 정체성을 경험하고 자존감,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연극단으로 만난 형님·동생 '관계 맺기'

노인이라면 누구나 체력적 활동의 쇠퇴, 인지력 감퇴 등 개인적인 모든 측면에서 과거보다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제한적인 역할을 부여 받게 되며, 이에 심리적 허탈감, 허무감, 상대적인 박탈감 등에 직면하게 된다. 농촌지역의 노인들이라면, 도시지역의 노인들보다 이러한 감정들이 훨씬 가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가'연극단 활동을 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연극단 활동을 통해 외로운 감정들을 잊을 수 있었으며, 재미와 즐거움, 삶의 활력소를 느낀다고 진술하였다.

“원래는 우리가 회관에도 잘 안나갔어. 여기 마을은 크고 회관이 멀리있어. 회관이 멀어 가지고 회관에 가나 할머니들. 특별한 일 있으면 한번 올라가고, 힘들어서 안 올라갈라고 하는데, 우리 연극하고는 거기 다 모이잖아. 그러면서 우리 단합도 잘되고.” (연구참여자 C, 2016.07.27)

“이걸 하면서 맨날 그런 식으로 하고 웃고, 어르신들 하고 형님 동생하면서 지내다보니 가까이 정도 나고, 아닌거는 아니다. 긴거는 기다. 그랬지. 좋은점은 웃고, 공부도 하고, 짜증스럽고 할 때 웃을 때가 많잖아. 그러다 보니 잊어버리기도 하고. 요즘 행복해요. ‘형님들 왔어요?’ 하고 그러면서 인사하고.” (연구참여자 B, 2016.08.02)

모든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극 활동은 처음이었으므로, 상당히 생소하면서도 재미있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들이 하는 연극 활동은 정식 연극배우들이 하는 연극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들은 대사를 잊어버리거나 남의 대사를 하였다는 등의 실수담을

인터뷰 도중 드러냈으며, 모든 실수는 공연을 마친 후 서로의 담화 속에서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다. 또한 극단의 회원들은 연극으로 시작된 관계지만, 이러한 관계는 연극 활동을 넘어서는 다른 활동까지 함께 즐기는 관계가 되었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노년의 삶에 활력소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래 모이가 연극을 배우이 하니까 어찌 좋던지. 기분이 그리 좋아요. 생전 처음해 보이 너무 재미있었어. 처음에는 진짜 시간가는 것도 몰랐어.” (연구참여자 G, 2016.08.08)

“대사 빠져먹고 일하면 빠져먹는거는 없는데, 역할하다가 못하고 빠져먹고. 연극을 하다가 보면 여러사람이잖아. …(중략)… 그럴때는 그냥 지나가. 할 수 없잖아. 근데 그게 우리는 알아 하하하. 대사하나 빠져먹고, 너 잘못 지켰다 이카면서.” (연구참여자 A, 2016.08.08)

“연극단 활동하는게 재밌어. 우리 한번 씩 코에 바람 넣으려고 놀러가고, 추운 날에는 갈비탕도 같이 먹으러 가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연구참여자 C, 2016.07.27)

“연극을 함으로 해서 내 자신의 활력소를 갖다가 심게 되는거지요. 일도 하면은 일을 해가지고 땀 흘려가 일을 하고 나면 보람의 결실을 보듯이, 연극 이것도 이렇게 하니까 활력소가 생겨요.” (연구참여자 H, 2016.08.09)

‘가’연극단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만 하더라도 어로리는 몇몇 공장이 들어서 있는 평범한 농촌마을의 경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어로리의 자연마을인 어붓골, 논실 등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사용빈도가 높지 않았던 마을회관은 ‘가’연극단의 한글공부와 연극연습을 통해서 다시 마을의 공동 공간 기능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극단 활동을 통해 형성된 관계들은 긍정적이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친밀함은 개인의 즐거움과 행복감으로 연결됐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13명 중 8명은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으로, 평생학습 활동을 통해 ‘형님, 동생’과 같은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로서, 삶의 보호자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2. ‘배움’에 대한 열정과 ‘성취’하는 재미

노년의 삶에서 인지하는 성취감은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척도로 알려져 있다. 노인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능력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고 현재 자신의 모습을 수용함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고,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때 노인의 자기 성취감이 형성될 수 있다(왕명자, 서은주, 차남현, 2009: 26-28). ‘가’연극단 활동을 하는 연구참여자들은 극단 활동과 자신의 성취감을 다음의 면담에서 진

술하는 바와 같이 표현하고 있었다.

“한글공부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받침이라든지, 모르는 낱말 같은거. 안 써보는 시도 써보라고 하고. 다 같은 한글이라도 받침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우리들 배울 때 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틀려. 지금은 모르는게 너무 많으니까 배우게 돼요.” (연구참여자 B, 2016.08.02)

“우리가 우체국이나 이런데 가면 자기 주소도 못 썼어. 이제는 은행하고 이런데 가서는 이름하고 주소 다 쓴다니까. 이제는 거기 직원들 도움도 안받아도 되고, 혼자서 쓸 수 있다는게 정말 좋더라니까.” (연구참여자 K, 2016.08.09.)

연극단 활동을 통하여 배움으로서의 가치를 인지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성취감은 극대화 될 수 있다. '가'연극단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 중 글자를 쓰지 못하는 사람은 5명이었다. 하지만 연극단 활동을 통해 한글교육을 받고 연극연습을 함으로써 자연스레 한글을 쓸 줄 아는 능력이 향상 되었다. 이들은 일상 생활에서 한글을 쓰지 못하여 항상 도움을 받았으나, 이제는 혼자 쓸 줄 아는 능력이 생겨나면서 성취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우리는 할매들이라서 그런가. 나가면 상받는다. 우리 1등도 진짜 많이 받았거든? 그럴 때는 진짜 우리 극단 이름매로 참 보람돼. 내가 이름 잘 지었다 됐다.” (연구참여자 F, 2016.08.01)

“많이 했지. 안 간데 없다. YTN, SBS, 또 뭐드노.. 많이 했어. 지금 연합뉴스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싶어. 우리 언론에서도 진짜 많이 찍어가. 사람들도 그거를 보고 연극배우 왔다고 난리래요.” (연구참여자 C, 2016.07.27)

연구참여자들은 연극단이 외부 경연 대회에서 상을 받거나, 주위의 사람들이 '가'연극단의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성취감을 느끼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가'연극단의 평생학습 활동은 <칠곡군 우수 동아리 표창패(2015)>, <실버문화 페스티벌 최우수상(2015)> 등 많은 수상 실적을 낳았다. 그리고 연극단의 연구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주변의 긍정적인 반응들에 의해서 여러 방송과 미디어에 출연하는 등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경연대회 입상 등의 수상실적, 미디어의 출연을 통한 경험이 성취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없었던 시절의 상황에 따른 학업에 대한 미련과 부러움 그리고 '모름'으로 인한 불편을 연극단 활동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즉,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노인들에게 연극단 활동은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이며 능동

적인 자세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성취감을 느끼며 삶의 의미를 찾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연극배우로서 ‘인정’을 통한 자신감과 자존감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경험하는 인지력 감퇴, 노쇠화의 과정으로 외로움, 고독감,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연구참여자들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노인 연극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심신(心神)의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는 곧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연결되었다.

“처음에는 막 나도 모르게 과자를 막 끌어담아가지고 내대로 해가지고 막 던졌어. 가까운데는 안던진다. 저 멀리. 사람들이 좋다 카드라고. 내하는대로 해뿌써. 이상하게 춤을 추는데 북을 안고 칙칙하하는데 억수로 잘되대 그게. 북을 안고 돌면서 춤추고 박이고 나가고 했지. 그레 나가니까 음장도 있고 했는데 잘했다 카면서 하데.” (연구참여자 D, 2016.08.09)

“나는 항상 대사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한테 대사 많은거를 주면, 내 안해여 대사 많은 거 내 안 해여. 이카면서 안 할라고 필쩍 뛰겼던. 결국은 또 하라카는 데 우야노 거절을 못하고 끌어안고 앉았기는 앉았는데, 걱정이라” (연구참여자 I, 2016.08.02)

“너거 동네는 재미나겠다 하지. 좋겠다 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하하). 여기서 어떨 때 내가 회관에 나가던지, 아니면 내 볼일 보러 나가던지 해서 사람들 만나면, ‘연극하러가요?’ 이 카는 사람들도 있어.” (연구참여자 A, 2016.08.08)

“우리가 이렇게 연극하는게 칠곡군에서 우리만 하는게 되다 보니까 잘 되고 있는거 같아요. 주변 평판도 좋아지고.” (연구참여자 H, 2016.08.09)

연극단 할머니들의 자존감은 주로 무대에서 공연할 때, 관객들의 반응을 통한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몇몇 참여자들에게서는 대사량이 많은 주연배우역할을 맡음으로써 그들의 자존감은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그리고 가족, 마을 이장, 담당 선생, 타인들 및 언론 매체 등 주변에서의 많은 관심과 인정을 통해 자존감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 이는 노인의 자존감은 자녀의 성공, 주위의 인정과 존중에 따라 형성된다는 성옥경, 김영경, 김건희(2012: 164-166)의 연구결과와 부합하고 있다.

“나는 연극하다가 내 의견을 내는 편인데, 딱 때리라는 거 요 때리까. 요 때리까. 이기 낫지 않나 카모 그리하라카고. 돌쇠를 내가 머라카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내가 선생한

테 얘기해서 넣었고, …(중략)…그라모 선생도 됐다카고. 좋다 카고. 조금 그래도 나이 많은 노인들 보다는 조매 낫지.” (연구참여자 I, 2016.08.02)

“점순이는 내가 데리고 나가면 맨날 초를 봐주잖아. 이번에 이거 할 때고 맨날 초를 봐주고 하는거 맨그로 하지말고, 점순이 혼자 하라고 하데. 선생이. 점순이가 잘 모른게. 살모시 밑으로 얘기해주고 하는거지.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애타져요. 속 터진다니까.” (연구참여자 A, 2016.08.08)

“극단 활동 하기 전에는 남 것만 듣고, 내 혼자 이렇게 적어보고 했지. 내가 남 앞에 서서 해본 다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런 적이 나도 남한테 서서 이런거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 남 앞에 여럿이 공동체를 이렇게 하는 모임의 즐거움,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연구참여자 H, 2016.08.09)

연극단 할머니들은 공연하는 내용들에 대하여 자신들의 생각들을 제안하기도 하고, 연극단 내에서 같이 활동하는 동료들을 가르쳐 주거나 지원함으로써 상호작용과 협상 그리고 연극단 구성원 간 협력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할머니들은 연극단에서 여러 역할을 해보고, 서로의 다른 역할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봄으로써 다양한 정체성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관객 앞에 서는 연극 배우로서의 역할을 가짐으로써 관객 앞에 설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그녀들이 연극배우로서 관객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가치 있는 존재임에 대한 자존감을 형성하였다.

가족에 대한 부양부담과 책임감으로 인해 헌신과 희생으로만 점철된 연구참여자들의 인생에 연극단 활동은 매우 생소했을 것이다. 그들은 연극을 통해 해맑은 소년이 되기도 하고, 도깨비가 되기도 하며, 힘센 장사가 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연구참여자들의 말과 손짓, 몸짓에 즐겁고 슬픈 감정들을 느끼며, 그들에게 감사와 존경, 그리고 그들의 노력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가족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 아닌, 연극배우로서 관객들과 소통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누군가에게 자신의 존재가 감동이 될 수 있다는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감과 자존감은 지속되는 연극단 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연극공연에 대한 애정과 주인의식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연극단 활동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정신적·신체적 여건이 열악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사회적 지지가 적을 경우, 노인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커지며,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 역시 증가할 수 있다(노병일, 모선희, 2007: 65-66). 연구참여자들의 연극단 활동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켜 고독감과 우울감을 줄이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마을공동체로서 ‘소속감’, 자부심에서 책임감까지

누구나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다른 세대들보다 사회적인 관계의 기회가 적어진 다. 노인이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과 지위의 상실, 조직 참여의 기회 상실, 퇴직으로 인한 경제 능력 상실, 급격한 변화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노인은 공허함과 무력감을 경험할 수 있다(박흥신, 2003; 김기운, 2016: 7 재인용).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연극단 활동을 통해 마을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연극단원으로서 사회적 위치를 경험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일주일에 이틀동안 두시부터 네시까지 성인문해교실에 글씨 모르는 할매들 공부하잖아. 우리 마을에 그런 일들을 하이께네, 가서 안도와 줄 수가 없어. 가서 물 한잔이라도 주고, 커피 한 잔이라도 주고 그러니까네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하는거라. 그러이 시도 쓰고 그런 것도 있지.” (연구참여자 C, 2016.07.27)

“그 시선을 한 몸에 받으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즐거운 시간이 되게끔 하겠노 싶어가지고, 열과 성을 다 한다고 해도 내 마음에는 안 차는거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하는데, 우리는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생각도 듭니다.” (연구참여자 H, 2016.08.09)

연구참여자들 중에서 연극단 회장의 역할을 부여받은 C는 다른 회원들을 위해 다양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에 불만 없이 역할을 이행함으로써 책임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다른 연극단 구성원들을 돌보고 배려하며 함께 공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서적인 보살핌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 H는 2016년 인근의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지만 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만큼 연극단 활동에 애정이 많다. 위의 면담 내용을 통해서도 극중 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더 좋은 공연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 H의 노력은 개인적인 성장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다른 회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이 되면서 공동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촉매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연극단 활동은 개인적인 책임감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대한 보살핌으로 공동의 책임감을 형성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힘들었던 것도 있습니다. 내가 가정사에 바쁘니까 그걸 또 시간을 내어가지고 가서 할라카니까 시간 이게 쫓히다 보니까 몸에 피로도 오고.” (연구참여자 K, 2016.08.09.)

“힘들거나 한거는 대사와우고, 내 혼자서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실컷 하다가 뒤로 자빠지는 사람들이 천지라. (못하겠다고?) 어. 하다가 저러고 있어. 지금도 하나가 있어. 뭐가 빠뚫어 졌는지, 그카고 있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잘 되다가도 같이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자기들도 그걸로 아들들은 치매에 안걸리고 좋다카면서, 가게 보는 사람들도 큰 손해를 봐가면서 그래도 오잖아.” (연구참여자 A, 2016.08.08)

한편 연극단 활동이 늘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연구참여자 K와 A가 진술한 것처럼 공동의 활동을 한다는 것은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작은 희생, 어쩌면 큰 희생일 수도 있는 개인적인 이해에 대한 양보가 필요했다. 또한 함께 극단 활동을 하다가 뒤쳐지거나 빠지는 회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했고, 그 빈자리를 다른 극단 회원들이 자신의 이해를 더욱 양보하면서 채워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 이처럼 연극단 활동은 회원 간 다양한 내적 갈등을 딛고 피어난 결실과 같았다.

“우리가 이렇게 한 마실에서 살잖아. 한 마실에서 살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남하는 건 해야제. 그리고 동장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못한다고 못하겠더라고.” (연구참여자 E, 2016.08.01)

“공연은 빠지지는 못하지. 내 빠지면 안돼. 연극은 혼자 하는게 아니라서 빠지도 모해.” (연구참여자 A, 2016.08.08)

“우리가 연극하는 날에는 병원가서 링겔맞고 오는 날도 있다고. 그렇게 해서 연극연습하고 그렇게 가. 약도 먹고. 약을 사 먹으게 할 때는 무대 올라 가모 아픈 줄도 모르고 막 하고. 사람은 뻑뻑하이있제 막 마음도 불안 하이 아픈 것도 잊어 묵고.” (연구참여자 M, 2016.08.02)

연극은 혼자 하는 예술 활동이 아니라 집단적 활동을 통한 공연예술이기 때문에 만약 약에 하루라도 빠지게 되면 연극단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 하지만 ‘가’연극단 회원들의 평균연령이 약 70대 중반임을 감안할 때 그들에게 무리한 신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을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연극배우라는 책임감으로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극단 활동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었다. 연극하는 날에는 미리 병원진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는 등으로 신체적인 불편함을 견뎌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면서 극단 활동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 13명의 평균 거주기간은 약 40년 이상이며, 그 중 3명의 참여자들을 제외하면 약 50년 동안 마을에서 삶을 살았다. 비록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고향은 아니지만, 연구참여자들 살고 있는 이 마을은 어쩌면 고향보다도 더욱 친근하고 정겨울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의 시간들을 마을에서 보냈고, 이들이 가진 기억들 중

대부분은 마을이라는 장소 그리고 마을에서의 활동과 연계되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마을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마을을 대표하는 극단의 한 배우로서 형성된 자부심이 연극단 활동을 지속하게 하며, 이러한 활동의 지속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스스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노인 연극 활동의 평생 학습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칠곡군 '가'연극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13인의 노인들을 연구참여자로 하여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들의 삶 속에 연극 활동이 그대로 녹아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노인들의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변화와 내면적인 전환을 살펴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노인 연극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관계 맺기로 중요한 타인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역할 수행을 통해 다양한 정체성을 경험하며 여러 측면에서의 성취감을 느끼면서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연극 활동을 통해 배움의 가치를 깨닫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력의 기술을 습득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인 연극 활동은 연구참여자들이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보고 가치 있는 삶으로 도약하기 위한 일종의 학습 도구로서 의미화 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연극 활동은 노인들에게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힘으로 작용하며 개인과 마을(공동체)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중요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칠곡군 '가'연극단 활동의 사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생학습 공동체를 위한 시사점을 주고 있지만 이 공동체의 일부 구성원 간 갈등과 반목(反目), 면담 내용에 있었던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망에 따른 역할 공백처럼 구성원의 고령화에 따른 신체적인 제약과 제한적인 활동범위 등은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공동체를 위해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극단 일부 구성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의미 있는 활동 이상의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는지, 극단이 상업화 되어 복잡한 이해관계로 도구화된 활동의 사례가 존재하진 않는지 등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농촌, 도시, 어촌 등 마을유형에 따른 평생학습 활동과 저소득층 노인, 여성 노인, 만성질환 노인 등 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한 노인들을 사례로 평생학습 활동의 의미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이해를 돕는 연구 역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기운(2016). 노인 여가스포츠공간의 사회적 함의,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배(2008).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1), 211-231.
- 김선희(2008). 노인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 개발연구: 청원군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숙, 황선경, 염돈민(2011). 강원도 평생학습 추진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 김정진, 이성엽(2013). 노인 학습동아리가 사회적기업으로 변화한 사례 연구: ‘은빛미디어’를 대상으로,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6(3), 35-59.
- 노병일, 모선희(2007). 사회적 지지의 수준과 차원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7(1), 53-69.
- 노인교육연구회(2004). 노인교육. 강기정, 김종표, 모선희, 백옥현, 양병찬, 양승규, 이화정, 임상록, 한정란. 서울: 학지사.
- 성옥경, 김영경, 김진희(2012). 노인이 인지하는 자존감의 의미. 질적 연구, 13(2), 158-167.
- 왕명자, 서은주, 차남현(2009). 노인의 자기 성취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1), 23-30.
- 이승희(2011). 자존감 향상을 위한 노인연극 실행사례 연구: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연극반 활동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정, 이홍이(2016). 시니어 극단의 현황과 사례 연구: 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32, 629-650.
- 임경주(2009). 연극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교육연극방법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소은, 이병준(2014). 노인동아리의 의례적 학습과정연구. 평생교육학연구, 20(2), 63-88.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07). 노인 연극교육과정 개발·운영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현경석(2013). 연극기법을 활용한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연극교육연구, 23, 237-274.
- Arendt, H.(1958). *The human Condition*, 이진우, 태정호 (역)(1996), 인간의 조건, 서울: 한길사.

- Bengtson, V. L.(1969). *Cultural and occupational differences in level of present role activity in retirement. Adjustment to retirement: Across national study*, Netherlands: Van Gorkum.
- Davey, J. & A. Jamieson(2003). Against the Odds: Pathways of Early School Leavers into University Education from England and New Zea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2(3), 266-280.
- Dench, S. & J. Regan(2000). *Learning in Later Life: Motivation and Impact*, Research Report RR183, DfEE.
- Rowe, J.W. & Kahn, R.L.(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 행정안전부(www.mois.go.kr, 자료검색일 2017.11.3)

Abstract

Lifelong learning and new meaning: Silvers in play activities

Lee, Jaemin · Lim, Jihye(Andong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ifelong learning and meaning in silvers' life by observing these senior citizens participating in the events of the "Ga" theater troupe in Chilgok-gun. We developed a rapport with the villagers of Chilgok-gun and conducted participatory observation for over a year. Based on the research notes written during that period, 13 senior citizens who participated in the play activities for silvers were interviewed in depth and the results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the comparative analysis method.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these silvers creat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others by participating in the play activities and had fun growing and achieving together while acknowledging the value of learning. Furthermore, their self-confidence and self-esteem increased with their recognition in society for their theater activities. By giving a new meaning to their social role as members of the theater, clearly, they had developed a sense of responsibility toward the community.

[Keywords] Lifelong learning, Silver play activities, Community, Social network, Self-esteem